

2009년 1월 9일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백남준에게

알다시피 그리운 옛 친구, 나는 여기 앉아서 일전에 청탁 받은 너에 대한 글을 교정 보고 있어.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걸 너와 나만이 알겠지…… 우리는 결코 서로에 대해 쓰거나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서로 함께 말하고, 이야기 나누고, 글 쓰고, 생각했지, 심지어 물리적으로, 7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을 때도 말이야. 뭔가 변한게 있나? 우리 사이에 원자세계의 장벽이 들어서기라도 했나? 물론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 미술관 큐레이터나 비평가들, 더욱이 너에 대해 뭐든 알고 싶어 하는 한국의 젊은 친구들 수천 명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우리의 서신 교환, 우리가 쓴 모든 편지들은 거의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정신적 교류의 작은 마침표, 완전한 정지, 느낌표, 쉼표, 물음표, 하이픈이었어. 나는 너와 슈툽하우젠, 케이지, 그 외 극히 소수의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공유했지. 마치 창조가 우리를 붙잡아 지표면에 흩뿌린 듯이, 우리는 물질적 우주의 프리즘을 통해 창조적 완벽성이 빛을 내뿜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파편들이나마 찾아내 보여 주고자 했어. 한때 하나의 영혼이었다가 지구상에 흩뿌려진것처럼, 우리가 함께했던 그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사랑하는 내 친구, 우리는 서로를 발견했어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돕고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했지. 우리의 궤적이 어떻게 교차했든, 때로 그 궤적이 얼마나 동떨어진 것처럼보였든…….

너는 미국에 있고 나는 독일에 돌아왔고…… 한국…… 우리는 서로의 일부였기에 결코 서로를 그리워하지 않았어.

우리의 철학적 교류는 창조적 과정에 불을 붙였지. 우리의 예술은 언제나 우리가 본 것들의 표현, 우리가 발견하고 교환한 답변들의 파편이었어. 그 모든 것은 수수께끼 같은 구원의 과정에 기여했지. 그것은 위대한 기획이었어. 우리는 삶과 창조 그자체의 의미를 둘러싼 수수께끼에 답하고자 했지.

그래, 너는 기억하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 전시를 했는지, 북적거리는 생활, 포틴 호텔에서서의 만남, 어떨 땐 식비, 난방비, 방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오브젝트와 조각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우리가 본것들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구할 돈도 없었지.

시간이 흐른 걸 알아 이제 나는 네 이름이 새겨진 아트센터에 서 있어! 우리 둘 다 알지 : 예언자는결코 모국에서 알려지지 않는다지만 이봐, 한국에서 이 속담은 틀렸다는게 또 한 번 증명됐어. 한국은 앞으로 영원히 새로 태어날 네 형제 자매에게 희망과 용기, 위대한 영감을 줄 사람을 얻은 거야.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 센터를 통해 다시 만나, 그래서 번득이는 영감으로 충만한 대화를 계속하자. 그래서 네가 우리조상들과 만나서 나눴던 그들의 지혜를 얼핏 보여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너의 미술관에 오는 젊은이들이 네게 이끌려 삶의 본질적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 답변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곧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야. 이제 이 편지를 부쳐야 해.

지금은 내친구 그러니까 금방 다시 만나.

사랑을 담아서, 마리.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저는 발표하신 강연에 대해서 그냥 코멘트만 하기로 오늘 아침에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어림짐작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발표하신 김수기 선생님에 대해서 코멘트하겠습니다. 자기 고향을 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사상을 찾을 수 있고, 이제까지는 몰랐던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모르는 환경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시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유럽 전체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방가르드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좌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민족주의라는 것은 유럽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즉, 좌파이면 인터내셔널리즘이고 우파이면 민족주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좌파 민족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조금 신선한 생각이었습니다. 즉, 저는 어떤 것이든지 서로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좌파와 민족주의의 결합을 생각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사실 그 둘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です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스로를 편견에 가두어 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백남준은 유럽에 오자마자 마르크시즘에 심취하였고, 마르크시즘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지금은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본주의는 또한 많은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죠. 어쨌든 저희는 젊었을 때 너무나 가난했고, 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지식인들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유한 집안에

서 태어났더라도, 유럽에서는 가난한 지식인이나 가난한 교수로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식인들이 돈이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유럽에서 보헤미안이기는 했지만, 그가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은 가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좌파와 보헤미안 씬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전통성이나 전통문화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술가 집안 출신입니다. 종교적인 집안 출신이 아니라고요. 물론 종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저는 다행히도 부모님 덕분에 기독교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남준으로부터 동양의 종교와 기독교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컨대 기독교에서 마리아는 항상 울고 있지만, 동양의 부처는 항상 웃고 있죠. 즉, 이것은 그 둘이 서로 다른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 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항상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남준은 불교도로서 신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독일의 기독교적인 'lieber Gott' 의 개념을 좋아했습니다. 'lieber Gott' 는 '친애하는 하느님(dear god)' 이라는 뜻입니다. 저에게 '친애하는 하느님' 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또한 백남준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일 신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원칙으로서, 즉 창조의 원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백남준은 "신이란 선한 신이다." 라는 문구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남준은 "좋은 신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완벽하다면 나쁜 신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신이 어떻게 나쁜 신이 되고, 좋은 신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신은 중립적인 존재일 텐데요. 즉, 악함, 나쁨, 분노가 어떻게 신이나 종교적인 개념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토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서로 쌍둥이처럼 생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죠. 저도 2차 대전을 겪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죽는 것도 보았고 폭탄이 터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백남준 초기의 녹음 작업들을 들어 보면, 그는 전쟁 중 사람들이 죽을 때 내는 비명 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모두에게 친숙한 그런 비명소리죠. 우리

는 각각 동양과 서양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국가 출신이든, 지역 출신이든 인간의 고통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절대로 그것을 다시 겪으면 안 된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정치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매우 정치적이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피하고 싶었고, 다시는 인류가 전쟁과 파괴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존엄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서 숭고하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에는 환상이 깨졌기 때문에, 예전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은 유대인 학살 같은 것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독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오스트리아로 피난 가는 길에 흑인이 탱크를 타고 웃으면서 캔디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독이 든 사탕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미군들하고 친구가 되기도 했고 음식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아마 백남준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겪게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했는데도, 며칠 있다가 또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순진함은 어른들의 행동에 의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백남준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예술가가 됨으로써 사회의 주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정치, 돈, 과학과는 무관하게 예술에만 집중해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모두가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팔아야 되고, 작품을 전시해야 한다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삶에 대해 이해하고, 삶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하고, 또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조기경보 시스템이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관만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마음이 열려 있고, 도그마에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사회가 더 좋게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저는 예술가가 조기경보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가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콜론에서 했습니다. 백남준이 처음 독일에 왔을 때, 저희는 서로의 말을 들었고 서로의 예술 활동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남준이 공부했던 아시아의 사상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아까 김수기 선생님도 백남준의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셨는데요, 백남준은 그러한 지식을 저희에게 모두 다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독일 철학을 공부했고 이미 헤겔도 공부했었죠. 또 저희는 그때 불교적인 사상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금지되었고, 별로 없었고, 제3자였으며, 히틀러 치하에서는 문화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백남준이 불교에 관한 어떤 책을 가져온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책은 질문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답은 없는 책이었습니다. 진술은 없고, 오로지 질문만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 질문만으로 완벽했죠.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권터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비(非)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리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분법적이고 비아리스토텔레스는 이분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항상 '1+1=3'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언제나 이성적인 설명을 너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제삼의 대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터과 백남준의 불교 사상을 각각 서로 번역도 해 주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컬렉터를 위한 것도, 갤러리를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기록물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죠. 제가 만드는 작품은 저의 사상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즉, 진행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의 제 사유들을 모두 상자에 담아 놓거나, 아니면 그냥 두었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일종의 일기와 같은 것이었죠.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것을 굳이 예술작품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매체는 시든, 음악이든 아무것이든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적

군에 의해 죽거나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은 깨끗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잔인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제 얘기로 돌아가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서독 측 지식인들이 기반이 없는 좌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서독 측 지식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동독으로 끌려가서 마르크시스트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자, 그들은 지식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매우 이상하고도 공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수기 선생님은 “소리를 자유롭게 한다.” 고 하셨는데요, 소음 속에서 하모니는 아주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도 있고, 심각한 음악도 있고, 즐거운 음악도, 가벼운 음악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분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음과 침묵에서 리듬, 하모니가 있고요. 쇤베르크가 했던 것이 그 예가 되겠죠. 한국에서는 쇤베르크를 잘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는 쇤베르크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비엔나에서만 환영을 받았을 뿐이죠. 그리고 솔직히 아직까지도 쇤베르크의 음악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일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 대가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쇤베르크의 음악에는 12음계가 있는데, 각각의 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고 음을 민주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 중간에 인터벌이 없고 케이던스도 없이 모두 다 무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슈톡하우젠이나 백남준 등 그 다음 세대는 이러한 하모니를 이루는 음계를 파괴했으며, 리듬도 무언가를 따르지 않고 아주 복잡해졌고, 강도 또한 민주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동등한 강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악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 철사, 첼로 된 상자 같은 것들이 모두 악기가 될 수 있었죠. 그것을 바닥에 던질 수도 있었어요. 리허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죠. 음악가들은 단지 상자 속으로 고함을 질러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악기를 닮지 않은 새로운 악기들을 만들어 냈죠. 저희가 신성한 피아노를 던진 것도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아노 줄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며, 온갖 소리들이 섞이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첼로 된 물건에다 피아

노를 던질 때의 반향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소음들을 우리는 피아노 음악이 아닌, 피아노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리의 조화를 통해서 음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가가 아닌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한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백남준 자신이 말했듯, 그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예술가는 아니었지만 아주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영역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에 우리들은 건축가든, 화가든, 작가든 함께 모여서 서로 간의 매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림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를 고민했어요. 그 전에는 글이 의미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글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했죠. 제임스 조이스가 그런 경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 역시 언어였죠.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30개의 언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시를 만들어 내는 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번역은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은 번역이라기보다는 해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인과 만나서 한 번에 한 페이지씩 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함께 조합시키는 것이지요. 이러한 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예술인 경우 그렇죠. 보통 길에 서 있을 때는 소음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존 케이지의 콘서트에 가면, 깨어 있게 되죠. 케이지의 작품은 4분 33초 동안의 침묵이었어요.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 뚜껑을 열고는 4분 33초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듣게 되길 기대하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 옆 사람의 소리, 보통 그냥 간과해 버리는 소리들을 더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듣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틀리에에도 창문가에 새가 날아와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즉, 우리는 자연의 음악을 음악 내에서 경험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연주자는 4분 33초가 지나면

피아노를 타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각을 더 열게 되고, 자신이 뭔가 미지의 것에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알았던 것들도 새로운 맥락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술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는 것을 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의 프린트들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진정한 예술이란 발견하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며,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을 복제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카피인 것입니다. 이미 순수 창작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리지널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컬렉터들에게 항상 “예술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케치라든지 장난으로 만든 것, 즉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가장 재미있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컬렉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남준의 초기 작품도 그랬습니다. 그가 음악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틀리에에서는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남준은 아주 재미있는 것을 제 아틀리에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믿었고, 그것을 ‘레디 트루베(ready trouves)’ 라고 불렀습니다. 백남준은 쓰레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미디어와 텔레비전 아트로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디오나 미디어 아트로 가기 전까지는 TV가 너무 비싸서 그것을 망가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1~1962년에는 오브제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의식을 열고 스스로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쇼적인 것의 노예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라든지, 악보를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들도 몇 주나 연구를 한 다음에야 겨우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악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즉흥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백남준은 거기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것을 알아야만 아는 것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남준은 윈베르크를 비롯한 여러 지식을 전부 습득한 것이지요. 바이올린을 파괴할 때에도, 바

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파괴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바이올린을 파괴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백남준은 쇼팽을 잘 연주했는데, 쇼팽을 잘 연주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깡’ 하고 머리를 피아노에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처음으로 했느냐,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반복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즉흥성이 있기 때문이죠. 뒤러나 반 고흐의 그림과 비슷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술이 아닙니다. 뭔가 이전에 행해졌던 것들에 대한 메모리일 뿐이죠. 그렇지만 저는 백남준의 초기 작품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초기에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미성이 부족했지만, 백남준은 나중에 미적인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추한 장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하나의 장면으로 뽑아 내기도 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그런 것들을 많이 전시했습니다. 슈비터스도 그런 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아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슈비터스는 작은 액자 프레임을 가지고 다니며 그것을 통해 쓰레기나 다른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에게 “봐, 여기에 예술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심미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을 만드는 일에 심취했습니다.

다시 조기경보 시스템으로서의 예술로 돌아가서, 존 하트필드 같은 사람도 히틀러 독재에 조기경보를 울렸던 예술가였는데요, 그는 히틀러가 권력을 얻기도 전에 히틀러 정권을 보여 주는 포토몽타주를 만든 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백남준에게 보여 주었고, 그는 거기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술이 이렇게 정치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미래의 무시무시한 사건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술이라는 개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기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요? 비엔나 학파에서는 피로 많은 것들을 했죠. 잔인하다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에 질문을 던진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마리아가 흘리는 피눈물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비엔나 학파는 우리의 신성한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하에서 잔인함이 많이 자행되었죠.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를 안다면, 저희들이 한 이 작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아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반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돕지 못하고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남준이 한 가장 큰 기여는 우리의 테러리즘에 불교를 삽입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테러리즘’이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테러리즘을 말합니다. 즉, 무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백남준은 아주 열정적인 공연을 마치고 난 후에도 그냥 서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즉, 상냥한 친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연을 했던 감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으로 부터 한 발 물러나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잠이 깨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백남준은 파괴적인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남준에게 철학자들은 끄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남준은 즐기 시작합니다. 패널 토론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백남준은 즐기 시작하죠. 고개를 떨구고 말입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눈을 뜨고 한 문장을 이야기함으로써 모두를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결론짓는 한 문장이었죠. 서로 싸우지 말고 다른 의견에 경청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앤디 워홀이 아주 멋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술 비평가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앤디 워홀에게 무언가를 묻자 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나은 질문을 하라.” 고 했습니다. 백남준이라면 그저 예의 바르게 미소만 지었을 뿐, 답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공격하는 사람들의 맥을 빠지게 했던 것이지요.

파시즘 혹은 친일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독일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핀란드, 일본, 이탈리아 모두 파쇼적인 측면에서 바그너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그너를 들을 때마다 파시즘적인 이데올로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볼들도 오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파시즘은 어디에 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잘 아는 똑똑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손을 들어서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은 전통적인 제스처인데, 그것도 히틀러가 잘 이용했죠.

시는 언어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시가 또 의미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 가 되어 음성적인 상징기호로만 남는 것, 그래서 시를 다시 만들어 내고 무형적인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레비치나 라우센버그의 백색 회화 이전에는 비전형적인 추상 화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술가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 보거나, 예술가의 집에서, 어떤 창의력 있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 주거나 하는 등의 실제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슈톡하우젠과 11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슈톡하우젠은 뭔가 창조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 집에 어떤 진동이 있으면 작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작곡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아이들이나 청소부가 있을 때에는 작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 사람의 그러한 생각을 존중해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떠나고 조용하게 작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공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기대를 모두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내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를 통해 새로운 정신으로써 과거의 것이 아닌 나만의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과도한 복잡함이나 서양의 아방가르드 음악에 대한 저항으로써 미니멀 음악을 만들어 냈는데요, 테리 라일리와 라 몬테 영으로부터 1963년에 시작된 이 음악은 아주 커다란 힘이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12시간씩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4개의 현으로만 연주되는 음악이었습

니다. 이것은 유럽의 너무 과도한 악보나 너무 과도한 복잡성에 대한 반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연습하고 연주해 봤자 청중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니멀 음악을 통해 아티스트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고, 같은 스트링 사운드만 계속 듣기는 했지만 더욱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 음악을 많이 만들었던 필립 글라스도 미니멀 음악을 많이 했죠. 그의 곡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심장 박동소리나 인간에게 친숙한 리듬들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쇠베르크를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쇠베르크는 비엔나 출신이었지만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히틀러는 싫어했지만 독일은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독일이 조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항상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히틀러가 사라지기를 원했죠. 어떻게 보면 그는 이중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쇠베르크가 LA에 살았을 때 저희가 그를 방문했는데, 독일 이민자들이 그러하듯 그 역시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비엔나 학파 사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정신이 좌파, 즉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쇼스타코비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스탈린의 압력으로 인해 국가를 위해 프로파간다 음악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쇼스타코비치가 그렇게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사형당했을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파시스트 제도에 봉사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파시스트 제도에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술가에게 정치성은 없지만 예술가는 예술로 무장한 어떤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이고, 이를 통해서 파시즘을 자극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우리 독일에서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희는 1966년대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동양 문화를 접했을 때,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극장에 갔을 때 누군가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악보도 보지 않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극장 해프닝의 좋은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스승이 일어나서 자신의 악기를 학생들에게 주었고, 학생은 악기를 받아서 연주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스승 뒤에 앉아 아주 집중해서 스승이 연주하는 것을 듣고, 스승이 연주를 해 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연주를 잘할 수 있도록 몇 시간이나 집에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무라이 정신과도 흡사한데, 그것이 동양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서양에 제대로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보스들의 강점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쇠베르크처럼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해서 예술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세계화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혼동되고 섞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좋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민족주의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를 통해서 문화 전통과 그 문화의 최고를 보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인류가 더 잘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맥도날드적인 글로벌화가 아니라, 고유 문화를 유지하는 글로벌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클 수 있고, 더 시끄러워질 수 있으며,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왔던 백남준은 아주 젠틸했지만 어떤 때는 잔인할 수도 있었고요, 조용했지만 아주 시끄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다양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수기 선생님이 백남준을 처음 만났을 때 아우라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죠. 아주 심플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샤먼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백남준은 “예술은 사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바준 브락이 아마 내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백남준은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예술은 사기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외부인은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외부인이 이야기를 하면 비평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예술가가 자신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고 깊은 생각이 들어간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 성찰하는 과정으로서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인데도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술은 사기다.” 라는 것은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예술가만이 말할 권리를 가진 문장입니다. 물론 그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짜증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죠. 백남준은 언젠가 정치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져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주 다른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셉 보이스가 특히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썼는데요, 우리는 1950대, 1960대의 철학자들과 함께 앉아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주 다른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구의 지도를 새로 만들면서 여태껏 몰랐던 국가들을 만든 예술가도 있었고요, 또 하늘의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예술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의 하늘은 내 것이고, 저 부분의 하늘은 네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유명해지지는 못했지만요. 그는 뭔가 소유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고 난센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소유 개념을 가지고 지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백남준은 케인즈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학파, 신자유주의자들요. 어쨌든 백남준은 마르크스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로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는 케인즈가 더 나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김수기 선생님은 예술을 무책임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요,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전에는 엄청난 생각, 의심, 의혹, 질문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탄생했을 때, 뭔가 예술이 부산물로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볍게 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즉, 피아노를 잘 치는 연주자가 피아노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백남준은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예술은 흥미로운 것이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긴 지루함이 짧은 지루함보다 낫지는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백남준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저희는 초기에는 기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계 살 돈을 가진 예술가는 아무도 없었죠. 전자 스튜디오에는 기계들이 있어서 테이프를 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백남준은 마그네틱 폰을 처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남준의 집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었는데, 다른 스튜디오에 가서 쓰레기들을 많이 주워 왔습니다. 전자음악을 할 때에는 테이프

를 잘라야 했기 때문에, 테이프가 남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곡가들은 쓰지 않는 테이프 부분을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백남준은 그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서 테이프들을 붙여서 들었습니다. 정말로 임의의 음악, 케이지적인 음악을 만든 것이지요. 작곡이 아니라 우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적으로 만들기 는 했지만, 백남준은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계획적으로 그런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백남준의 테이프를 들어 보면 멜로디가 있고, 중단이 되고, 다른 것이 나오 기도 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제대로 들리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튜디오는 라인 강 주변 5층에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는 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모든 것을 어둡게 해서 케이지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백남준은 마그네틱 머신을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정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계를 통해 소리를 듣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보통 그냥 길에서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때 소리를 최대로 틀고 듣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전쟁 후에 잔인하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도살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부분을 믹스 앤 매치해서 만든 교향악이 나왔는데, 우린 그것을 최대한 볼륨 업해서 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벨을 눌렀죠. 문을 열었더니 경찰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체포하려 했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를 다그쳤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다고 했더니, 그게 무슨 음악이냐며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 같다고 신고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백남준이 마그네틱 머신을 보여 주면서 음악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했더니 경찰들은 그대로 서서 그것을 조금 더 듣다가 고개를 저으면서 떠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소리를 내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이 비명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백남준은 좋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가난하게 살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우리와 함께 공동 예술 작업을 하는 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형이 콜론에 왔을 때 자기 동생을 보고 아주 난감한 얼굴을 하기도 했습니다. 슬리퍼 같은 것을 끌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아서 백남준의 형이 난감해 할까 봐 우리는 돈을 합쳐서 백남준을 위한 아주 멀쩡한 슈

트를 사 줬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슈트가 다 망쳐졌지만 백남준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이 말끔한 슈트 차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백남준의 형이 떠날 때 백남준의 그림을 3점 사 줬기 때문에 돈이 생겼습니다. 백남준은 그 돈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저희는 공연을 준비할 때, 집을 돌아다니면서 기부금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하려면 무대도 빌려야 하고 약기도 빌려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옷차림이 좋았습니다. 저희 예술가 그룹에 디자이너도 한 명 있었는데, 우리의 예술 작품과 그 사람의 옷을 교환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항상 저희는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음식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백남준의 형이 왔을 때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밥도 먹여 주고, 백남준의 작품을 사는 바람에 우리에게 돈이 생겼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작은 이야기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다 백남준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명예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으므로, 부와 지식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다시 한 번 좋은 오브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김 선생님이 했던 것들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미도리 선생님은 바그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이데거와 바그너는 파시즘을 잘못 이해했죠. 백남준도 바그너와 하이데거를 공부했지만요. 중립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토 피네는 제로 그룹에 참여했었는데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죠. 그는 빛(light) 발레를 했습니다. 전구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서 나온 빛을 벽에다가 반사시켜서 그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모양들은 돌아다니는 빛의 포인트도 있었고, 빛을 길게 하기도 했습니다. 슈톡하우젠이 거기에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는데요, 슈톡하우젠은 이런 식으로 리듬이 분할되다가 다시 평평해지는 것을 피네의 빛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피네가 빛을 반사시키는 것을 봤을 때 슈톡하우젠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고 말했고, 백남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빛과 움직임은 무언가를 비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빛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나 TV 아트를 할 때 여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남준의 반식민주의는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인들은 반식민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민주주의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식민주의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의 가장 큰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식민지를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미국은 영국 왕에게 아주 험값에 팔렸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파괴성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 함께 존재합니다. 인도 철학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보전하는 신이 있고 파괴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파괴와 건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처음에 저희 아버지는 집이 파괴되거나 폭탄을 맞은 것을 찍어 그것을 리와 인드해서 저희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즉, 집이 폭파되었다가 다시 온전한 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제가 백남준에게 보여 주었더니 “이것을 음악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되감기 위해 마그네틱 폰 기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가 없을 때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돌려서 말하려면 매우 어렵죠. 음악 한 곡을 거꾸로 돌려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거꾸로 돌려놓거나, 관점을 바꿔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백남준은 클래식 음악 그리고 다른 음악에도 이러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넥타이를 자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입니다. 1960년 10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남준은 존 케이지를 향한 오마주를 연주한 다음에 피아노를 던졌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케이지는 아주 무서워했는데요, 왜냐하면 백남준이 집중력을 가지고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남준은 케이지에게 다가가 셔츠를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행을 왔기 때문에 셔츠가 하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넥타이를 자른 것입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가톨릭 축제인 카니발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카니발은 3일 동안 나쁜 행위를 하고, 신부님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고백성사를 한 후 다시 깨끗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요, 그러한 카니발이 독일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용 카니발이 있었는데 그날은 여자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남성의 넥타이를 자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독립성에 대한 상징으로서 말입니다. 백남준은 바로 이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남준은 단순히 넥타이를 자른 것이 아니라 콜론의 민속적인 풍습도 같이 연계시켜서 넥타이를 자른 것입니다. 또한 백남준은 그 넥타이가 스즈키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메시지가 중첩되어 있는 셈이죠. 콜론의 민속예술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케이지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케이지는 무정부주의의 선생님이었죠. 그냥 거기에 서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매우 결연했어요. 케이지는 나중에 백남준이 “자기를 죽일지도 몰랐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래도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도르노 역시 무정부주의의 선생님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이행하고 보여 주지는 않았죠. 무정부주의의 선생이긴 했지만 백남준이나 케이지만큼 용감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중세에는 그런 것이 존재했습니다. 음악가들은 자기 마음대로 연주를 하고 악보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첨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유로운 연주는 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유롭게 연주를 하라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즉,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을 자유롭게 하고 창조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케이지는 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케이지가 링컨 센터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마음대로 연주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케이지는 슈톡하우젠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그들은 자유를 보고 어쩔 줄 모르더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슈톡하우젠도 자유를 주기는 했지만, 그것은 구조가 있는 자유였고 그중 최고가 바로 오리기날레입니다. 슈톡하우젠은 전자음악인 콘택트를 연주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덟 명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 여덟 명은 제 아틀리에에서 연주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이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즉, 오리기날레는 그런 슈톡하우젠의 무정부주의적인 정신에 들어가 있었지만, 어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틀에 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백남준은 정말 창의력 있게, 지적으로, 유머러스하게 그런 것을 정말 잘할 수 있었고, 백남준만의 에너지와 사

머니즘적인 정신은 청중에게 항상 제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모두 같이 흥분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죠. 그런데 백남준이 공연을 하다가 청중들에게 음식을 던졌기 때문에 저희는 공연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독일은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던진다는 것은 불법이었죠.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공연을 계속하기는 했습니다.

문화를 알아야만 하는 행동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외국 문화를 얹으로써 내 자신을 더욱더 오픈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백남준은 말기에 뇌졸중과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년에는 정말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아픈 것과 병을 끄찍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마지막에는 정말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백남준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는 휠체어를 찾고 있었는데, 40년 전 제 스튜디오의 전화번호를 저에게 전했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기억력은 가지고 있다는 것, 자기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백남준이 1963~1964년경 뉴욕에서 처음 로봇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것에는 공상과학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53번가에는 차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로봇을 리모컨으로 움직였죠. 고무로 된 가슴을 가진 로봇이었고, 가슴이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아주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로봇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는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만지거나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백남준은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시도했구요. 그게 백남준의 컴퓨터였던 것 같습니다.

한나 히긴스의 강연에 대해 코멘트하겠습니다. 블랙홀이나 중력, 아인슈타인의 개념들을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한번은 백남준과 자연법의 어떤 테러, 독재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독재나 파시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자연에도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신체의 파괴력이라든지, 아니면 법의 파괴력, 자연의 파괴력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과학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아인슈타인의 철학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백남준과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케이지의 어떤 우연적인 것들, 결정하지 않는 것들, 뭔가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서로 상반된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결정확이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수학자들은 자연에서 증명을 찾으라고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리학자들이 찾는 것을 수학자들은 공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학자도, 수학자도 결정학적 성장을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즉, 중간에 뭔가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술가들의 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나 히긴스의 코멘트를 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매클러는 정말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예술가이면서도 워홀에게도 많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겸손하거나, 너무 정교하거나, 조금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모든 탄생은 빅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에너지와 물체가 합쳐지는 거죠. 우주의 시초는 아니더라도 항상 그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묵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답을 찾자.’